

# 고독한 직지... 그리운 직지

## 해외불교칼럼

7월 16일 히말라야의 한 산봉우리에 처음으로 '직지(直旨)'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젊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선조가 발명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자 특별기획한 행사다.

직지의 탄생지인 충북지역 산악구조대가 주력인 '직지원정대'는 당일 새벽 3시부터 13시간 동안 짙은 안개와 눈보라를 헤치고 파키스탄 북부 히말라야의 6235m 고지 정상에 '직지(JIKJI)'의 깃발을 꽂았다. 등정에 성공한 이들은 인근 파키스탄 오지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귀국한다.

파키스탄 정부 및 산악협회와 협의대로 이 정상은 직지봉(Jikji Peak), 또 등정코스는 직지루트(Jikji Route)로 세계등반지도에 새겨진다.

이상은 내외신의 보도축약이다.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 선조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직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를 지켜내지 못한 후난 후손의 수치심, 그러나 이처럼 민족적 긍지를 굳게 지켜주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눈물 속의 무지개처럼 형광어진다. 고려 말인 1377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이 책은 본디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그러나 흔히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로 줄여 부르다가 마침내 '직지'에 이른다. 그런데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개회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가 '직지'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우리의 성보 '직지'는 남의 나라에 있다. 사진은 '직지' 홍보 행사 장면, 작은 사진은 '직지' 표지와 내지.

한 서책전사회에 <직지심경>으로 잘못 소개된다. 불교에서 '경(經)'이란 경전을 뜻하는바, 이 책은 불경이 아니라 불서다. 따라서 <직지심경>은 틀린 표현이며, 이 책의 관심제(版心題)에 표기된 가장 간략한 '직지'가 바른 통칭이다. 직지의 주제는 직지심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은 마음을 곧바로 보는바가 곧 깨우침이란 뜻이다.

'직지'의 편저자 백운 화상은 범명 경한(景閑)이다. 그는 1298년 전라도 정읍 출생으로 54세에 원나라에 들어가 인도의 고승 지공 화상에게 배우고 중국의 석육 선사로부터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을 전해 받은 후 56세에 불도를 득한다. 이후 황해도 해주에 안국사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그는 75세에 성불사에서 145가

(家)의 법어를 상하 두 권의 직지로 편집 저술한다. 그는 이 불사를 끝으로 77세에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한다.

직지는 1377년에 청주목(淸州牧) 인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다. 간행기록에 나오는 석찬(釋璨), 달잠(達潛)은 그의 제자로 석찬은 <백운화상어록> 상하권을 수집기록한 수행비서 겸 시자(侍者)다. 특히 '시주 비구니 묘덕(妙德)'은 직지의 흥덕사 금속 활자본은 물론 취암사 목판본의 간행에도 참여한 진취적 열정과 불심을 지닌 분으로 보인다.

현재 흥덕사의 금속 활자본 중 상권은 유실되고 하권 38장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취암사 목판본의 경우, 상하권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

각, 또 영광 불갑사에 소장되어 금속 활자본의 누락부분과 체계보완에 도움을 준다.

금속 활자본 직지는 1886년 한불수호 통상조약 체결 후 초대 주한대리공사 폴랭 드 뵈랑시가 각종 문화재와 함께 프랑스로 유출한다. 모리스 꾸랑이 1901년에 저술한 '조선서지' 보유 판에 직지의 일부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1900년경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직지는 1911년에 경매된 후 앙리 베베르가 보관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1950년대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다. 그리고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맞아 서책전사회에 최초로 공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1985년 청주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팀이 현 청주 흥덕구 운천동 866번지를 흥덕사 터로 확인한 후, 유적지 정비와 함께 청주고인쇄박물관도 개관된다. 그리고 2000년 직지의 국제 홍보를 위해 '2000청주인쇄박물관박람회'를 개최,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공인을 받는다.

머나먼 타국에 백인이 넘도록 남겨진 직지가 어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나 직지가 머물기엔 아직은 그곳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찰을 불지르고 불교문화재를 부수고 땅속에 처박는 아만적 광신도들이 설치한 이 땅보다는 거기가 안전하지 않을까? 앞서 보도의 끝 부분이다. '또한 직지는 발을 상 파키스탄 카라코람 현지의 방언으로 '고독'을 뜻한다.' 마치 직지의 외로움을 뜻하는 듯하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BCT, Arirang News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6

# 흑인여성 애환을 소설로

앨리스 워커는 1982년 발표한 <컬러 퍼플>로 소설부문에서 풀리처상을 받았다. 금세기 미국흑인의 삶을 이해할 또 다른 계기가 된 이 작품은 그 사회의 하류층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짓눌린 흑인 여성의 애환을 그렸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일약 영예와 명성을 거머쥔 스타로 떠오른다. 그러나 지나친 편견과 왜곡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으로 인해 검열의 대상이 되고 전 미국도서관협회 선정된 최고 도발적인 서적 100 권 중 18 위에도 오른다. 서간체 형식의 컬러 퍼플은 그 폭발적인 인기가 우리나라까지 미친 작품이다. 간단히 줄거리를 통해 그녀의 작품세계를 잠시 스쳐보기로 한다.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 죄다 순하고 어수룩한 흑인 소녀 셀리는 열네 살 때 의붓 아버지에 당하여 아이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의붓 아버지는 그들을 어느 목사부부에게 줘버린다. 천성이 고운 그녀는 여동생 네타랑 내내 함께 살고 싶지만 의붓아버지는 이제 네타마저 집적낸다. 그는 앨버트란 중류층이 동생 네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너무 어리다며 그 대신 셀리를 보내버린다. 억지 결혼을 당한 셀리는 앨버트 전처 아이들의 구박에 남편의 손저검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그러나 티 없이 맑은 녀를 지닌 그녀는 늘 이웃들을 돌보고 감싸준다.

어느 날 목사의 딸이자 떠돌이 가수인 석이 공연을 왔다가 목이 아프자 앨버트는 그녀를 집에 데려와 돌봐주더니 냉랭 잠자리도 함께한다. 하지만 셀리는 석을 중요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되레 따스하게 보살핀다. 그녀의 가없는 보살핌에 감동한 석은 셀리가 새 삶에 대한 눈을 뜨도록 돕는다. 어느덧 그녀들 사이엔 동지애와 비슷한 양성애(兩性愛)가 싹이 튼다. 그들은 앨버트가 없는 틈에 집안을 뒤져 그가 감춰둔 동생 네타의 오래

된 편지를 찾아낸다. 그 편지에서 셀리는 자기 아이들이 다 살아남아 네타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소식을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앨버트에 대한 분노를 삭이며 그녀는 석과 함께 새 삶을 찾아 떠난다. 셀리가 가정을 버려야 앨버트의 생활은 이내 엉망이 된다. 한편, 석은 자신의 방랑을 혐오하던 목사인 아버지를 찾아가 목은 양금을 떨어낸다.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만든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그는 주인공 셀리 역으로 열연을 펼친다. 이 영화는 그 해 최고의 명화로 평가받는다.

## 소설로 남성·백인우월 근본오류 지적

## 1985년 영화·2005년 뮤지컬로 탄생

극찬을 받고 아카데미상에서도 11개 부문에 걸쳐 시상후보에 오르나 단 하나도 수상하지 못한 논란이 된다. 게다가 흑인남성을 가혹하고 비열하게 묘사했다 하여 격분을 불러일으킨다.

그야 어쨌든 무려 20년 뒤인 2005년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작품을 뮤지컬로 제작하여 브로드웨이에서 대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2006년 외곽평론가상의 5개 부문의 수상후보로 지명되고 토니상의 최고여자주연상도 수상한다.

컬러 퍼플은 지배계급의 전폭적 상징이다. 보잘못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가하는 무언의 위압을 암시하는 동시에 금기와 제약의 의미도 지닌다. 앨리스 워커는 소설 <컬러 퍼플>을 통해 남성우월, 백인우월이라는 가소로운 근본오류를 지적한다. 그녀는 컬러 퍼플이란 이름으로 가정사실화되어 온 구제계(ancien regime)에 일격을 가한 현대문학혁명의 전위다. '신마저 남성이고 백인이리니? 하하, 그건 또 누가 정한 거죠?'

성휴 스님

## '수치 속에 스러진 붓다' 수상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된 미국의 제4회 트레버시티 영화제에서 이란이 출품한 '수치 속에 스러진 붓다'가 청림자상을 수상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제작자 마이크 무어가 발기한 이 영화제는 비영리자선교육활동의 일

환이다. 20세의 젊은 감독인 하나 마흐말바프는 처절한 전쟁 후유증과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바미안의 거대 석불들이 탈레반에 파괴되어 텅 빈 폐허만 남겨진 화면을 통해 붓다의 눈에 비친 인간의 비애와 무명을 투영했다. 출처: PTV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So what are you?” they asked. “I am awake.”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깨우쳤습니다.”



When the Buddha start to wander around India shortly after his enlightenment, he came across some people who recognized him to be a very extraordinary being. They asked him, "Are you a god?" "No" he replied. "Are you a reincarnation of god?" "No" he replied. "Are you a wizard, then?" "No." "Well, are you a curer?" "No." "So what are you?" they asked, being very perplexed. "I am awake." He never claimed that he was a god, the child

of a god or even the messenger from a god. He was a man who perfected himself and taught that if we follow his example, we could perfect ourselves also.

깨우침에 이른 붓다께서 인도를 돌아다니실 때다. 그분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차린 이들이 물었다. "당신은 신이시요?" 붓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난 신이요?" "아니요." "하면 혹시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요?" "아니요." "그럼 병을 고쳐주는 의원이요?" "아니요." 은근히 짜증이 난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깨우쳤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 우기질 않았고 신의 메신저로 나서지도 않았다. 붓다 세존은 스스로 깨우쳐 자아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본받으면 누구든 스스로 완성된 자아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친다.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약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 교육시간 : 화요일 - 일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 제 1기 단전호흡·명상·최면 수강생 모집

- ▷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 ▷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